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의 變化와 特徵

김세진*

- I. 머리말
- II.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의 제작배경
- III. 朱子家禮의 수용에 따른 磁器製 誌石의 변화
- IV.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의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誌石은 한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삶의 궤적을 기록하여 墓 속에 매장한 물건으로, 墓와 죽은 사람을 결부시켜 후세에 오래토록 전하러 만들어진 것이다. 誌石에 기록된 내용은 本貫, 이름, 조상의 계보와 관직, 생일과 사망일, 관직과 평생의 행적, 가족관계, 墓의 위치와 坐向 등이 있다.

현재 지식이란 명칭은 연구자에 따라 “誌石”, “墓誌”, “墓誌石” 등의 단어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世宗實錄』에는 삼한국대부인 송씨의 장례절차에서 정선공주의 묘표와 지석이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있는 예를 따르라고 지적하고 있다.¹ 이러한 사례를 보면, 誌石이란 장례의 절차에 사용되는 부장품의 하나로, 지상에 세우는 墓碑나 墓表 등과 같은 물건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宣祖實錄』에는 李滉의 시호를 정하는 과정에서 墓誌를 갈문과 행장을 바탕으로 정하라는 기록이 등장하며,² 이를 통해 墓誌는 문장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문장[墓誌]이 아닌 물건[誌石]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誌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³

先學들에 의해 삼국시대를 비롯하여 고려·조선시대의 지식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이러한 연구 결과물은 각각의 지식에 관한 자세하고 정확한 분석을 얻는 성과는 있었지만, 다양한 지식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들과 함께 온양민속박물관의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研究(1992)〉와 국립중앙박물관의〈다시 보는 역사편지 高麗墓誌銘(2006)〉, 〈삶과 죽음의 이야기 朝鮮墓誌銘(2011)〉 등의 특별전이 개최되었다.⁵ 이와 같은 전시를 통해 고려·조선시대의 지식에 관한 전반적인 정리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世宗實錄』卷25, 世宗 6年 7月 21日 甲午.

驪興府院君禮葬時但有石羊石虎而無表誌石今三韓國夫人宋氏禮葬依貞善公主例有墓表誌石請府院君表誌於夫人表誌并錄之從之

2 『宣祖實錄』卷7, 宣祖 6年 11月 28日 甲辰.

玉堂上筭 上答曰賜諡豈無可爲之時何必違舊法創新規哉無已則取其墓誌等來令該曹依例議諡以定蓋因筭內請朴淳之墓誌奇大升之稿文門人之敘述取來則無異於行狀故也

3 지식이라는 용어를 재료적인 면에서 접근했을 때, 자기제 지식이라는 용어가 합당한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純祖實錄』卷7, 純祖 5年 2月 13日 丁卯에서는 “지식을 구했다[燔誌]”라고 기록되어 있어 지식이라는 용어가 재료에 상관없이 하나의 고유명사로 통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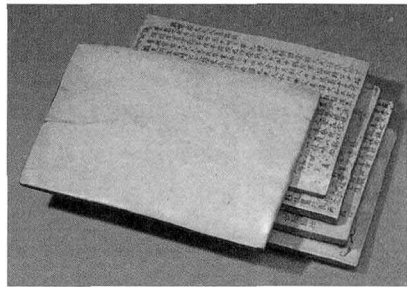
4 강대덕, 『朝鮮時代 江原地方 墓誌 小考』, 『嶺東文化』 2호(關東大學校 嶺東文化研究所, 1986); 同著, 『江陵 大田洞 出土 種城教授 李守渾 墓誌』, 『關東史學』 4집(關東大學校 史學科, 1989); 김울림, 『徽慶洞出土白磁靑畫御製思悼世子墓誌銘』, 『美術資料』 第66號(國立中央博物館, 2001); 朴炫玟, 『朝鮮時代 白磁墓誌 研究』(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4); 裴永東, 『朝鮮時代 誌石의 性格과 變遷』,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研究』(온양민속박물관, 1992); 錢승창, 『15世紀 位牌形 磁器墓誌와 位牌裝飾 考察』,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4(호암미술관, 1999); 鄭良謨, 『宣德十年銘 粉靑沙器墓誌』, 『美術資料』 第7號(國立中央博物館, 1963); 同著, 『安宗茂의 白磁墓誌』, 『考古美術』 4권 2호(통권 31호, 國立中央博物館, 1963); 同著, 『金在仁의 白磁墓誌』, 『考古美術』 4권 5호(통권 4호, 國立中央博物館, 1963); 同著, 『金景漢 白磁墓誌』, 『考古美術』 4권 6호(통권 35호, 國立中央博物館, 1963); 崔夢龍, 『全南大博物館 所藏品 三列』, 『古文化』 13집(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74); 同著, 『李朝墓誌 數列』, 『考古美術』 129·130호(國立中央博物館, 1976); 同著, 『全南地方 所在의 李朝墓誌』, 『古文化』 15(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77); 同著, 『全州市立博物館 朝鮮朝墓誌 數列(四)』, 『古文化』 16집(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77); 同著, 『朝鮮墓誌 數列(其三)』, 『考古美術』 136·137호(國立中央博物館, 1978); 崔淳厚, 『晉陽郡令人鄭氏墓 出土의 白磁象嵌墓誌』, 『美術資料』 第8號(國立中央博物館, 1963); 최호림, 『朝鮮時代 墓誌의 種類와 形態에 관한 研究』, 『古文化』 25집(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4).

5 국립중앙박물관, 『다시 보는 역사편지 高麗墓誌銘』(2006); 국립중앙박물관, 『삶과 죽음의 이야기 朝鮮墓誌銘』(2011); 온양민속박물관,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研究』(1992).

조선시대의 지식은 중국에서 전해온 석제 지식의 전통을 고려시대로부터 이어 받았다. 중국에서 제작된 최초의 지식은 1979년 陝西省 臨潼縣 趙背戶村에서 출토된 秦代 陶文이 새겨진 瓦片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⁶ 본격적인 지식은 남북조시대에 들어 나타나게 된다.⁷ 중국 최초의 자기제 지식은 唐代 越州窯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로 제작되었다.⁸

한반도에서 발견된 최초의 지식은 삼국시대의 것으로, 형태와 내용이 조선시대의 지식과는 차이가 있다. 본격적인 지식 문화는 고려로 접어들면서 중국 귀화인들의 지식이 제작된 이래, 왕·승려·귀족을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⁹ 그러나 고려시대 자기제 지식은 묵서기법으로 내용을 기록한 대접형지석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¹⁰ 현재까지 고려분묘에 대한 발굴이 부진하여 자기제 지석이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가마터에서 출토된 예가 없는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자기제 지석이 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제 지식은 도자사 연구에서 동반하는 기물의 연대추정을 돕거나, 양식의 변화를 추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白磁靑畫興寧府大夫人景泰7年銘誌石(1456)>(도 1)은 청화백자의 개시시기를 알려주기도 하며, 가마터에서 출토된 자기제 지식의 銘文은 가마의 운영시기 판단에 도움이 된다.



도 1 <白磁靑畫興寧府大夫人景泰7年銘誌石>, 1456년, 25.8~27.1×35.7~38.2×1.4~1.7cm, 고려대학교박물관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자기제 지식의 제작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형태 및 기법, 제작에 따른 자기제 지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6 中国考古学会编, 『中国考古学会第2次会论文集(1980年)』(文物出版社, 1982), pp. 186-195.

7 熊基权, 「墓志起源新说」, 『文物春秋』1期(2001).

8 浙江省博物館, 『浙江紀年瓷』(文物出版社, 2000).

9 고려시대에는 11세기 전반경 국가를 중심으로 유교적 예교질서를 장려하면서 지식이 등장하였다. 왕과 귀족층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지식이 제작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유교이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10 고려시대의 자기제 지식은 1987년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에서 출토된 <靑磁金瓚壽大樸形誌石> 1점으로 대접 내면에 묵서로 내용을 기록하였다. 銘文은 내저 중심에서 구연부 쪽으로 다섯 개의 방사선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乙巳 三月 十五日 金瓚壽 置表로 墓主人 김찬수의 시신을 안치하기 전에 무덤 위치를 잡아놓고 이를 표시하기 위해 제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제작 시기는 1065년 또는 1125년으로 추정된다. 강진청자박물관, 『고려시대 분묘출토 청자유물 특별전』(2007), pp. 26-2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강진군, 『고려청자 보물선과 강진』(2009), pp. 192-193.

11 본고에서는 전하는 자기제 지식을 중심으로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요와 일부 지방요에서 자기제 지식이 출토되긴 하였으나, 그 상관관계를 찾기에는 아직 자료의 한계가 있다. 생산지에서 출토된 자기제 지식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는 자료가 축적된 후, 차후의 논고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록 하겠다.¹¹ 또한 주자가례의 수용에 따른 자기제 지식의 변화를 통해 조선시대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른 사회 계층간의 특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의 제작배경

1. 유교식 상장례제도의 정착과 지식의 사용

조선시대의 朱子家禮는 각 시기의 시대정신과 결합하여 수용·확산·정착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례의 典範으로 안착했다.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유교식 예제가 수용된 후 유교식 상장례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식의 사용도 점차 확산되었다. 그러면 자기제 지식의 제작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에 주자가례가 어떻게 수용되고 정착하는지를 총 4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15세기는 주자가례의 수용기라 할 수 있다. 조선은 건국 직후,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주자가례를 수용할 것을 밝히고, 유교식 상장례제도를 채택하였다.¹² 그러나 왕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교식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¹³ 국가의 예제정비는 주자가례를 기반으로 하여 『經國大典』과 『國朝五禮儀』의 편찬에만 집중되어 있어, 유교식 예를 향유하는 계층은 왕실 및 왕실의 외척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세조의 장모인 仁川李氏의 墓域과 청화백자지석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다(도 1). 즉, 이 시기의 유교식 상장례는 세부적인 형식 및 제도가 구체화되지 못한 채, 가묘제와 삼년상을 장려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¹⁴

이후 16-17세기는 주자가례의 변용·확산기로 판단된다. 이 시기 사대부들은 書院과 祠宇를 통해, 문중과 가문을 중심으로 유교적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실생활에서 유교식 상장례의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문제점이 파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四禮 중 喪禮와 祭禮에 집중된 사립들간의 담문활동을 통해, 조선의 時俗과 주자가례 行用과의 절충안을 모색하였다. 예학자 申義慶은 상례의 절차를 도설로 나타낸 『喪禮備要』를 저

¹² 『太祖實錄』卷1, 太祖 1年 7月 28日 丁未.

一 冠婚喪祭祭國之大法仰禮曹詳究經典參酌古今定爲著令以厚人倫以正風俗

¹³ 정길자, 「고려시대 화장에 대한 고찰」, 『釜山史學』7(부산경남사학회, 1983), pp. 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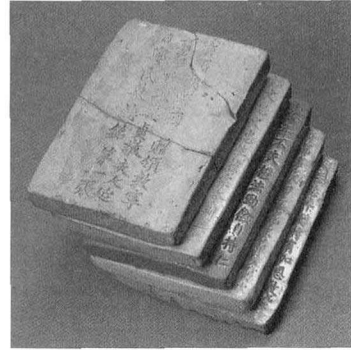
¹⁴ 조선 초기에는 朱子家禮가 일부 선진적인 신진사대부에서만 이해되던 수준이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사대부들이 일반인을 지배함에 있어 우월한 유교적 생활양식을 영위하고, 우선적으로 그들 자체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이들의 교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술하는 등 이 시기는 유교식 상장례가 사대부에 의해 실행되는 시기였다. 그 사례는 坡平尹氏 貞靖公派 貞敬夫人 延日鄭氏의 지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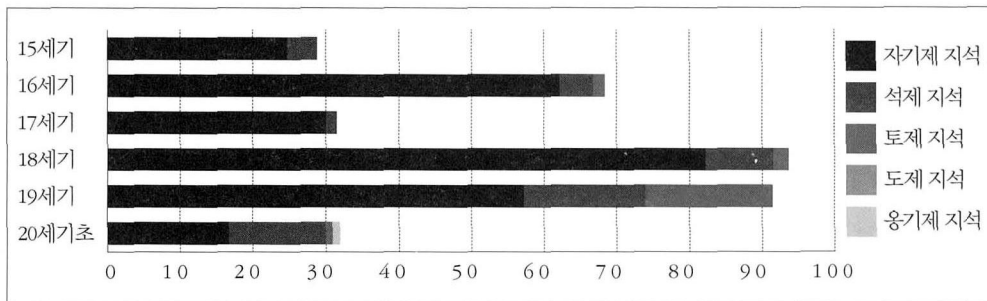
18-19세기는 주자가례의 정착기에 해당한다. 18세기에 들어 유교적 禮의 이론이 생활과 병행되면서,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보완하는 데까지 진일보하였다. 아울러 『四禮便覽』과 같은 많은 가례서가 편찬되었고, 예의 향유계층이 경제력을 가진 상민들까지 확대되었다.¹⁵ 경제력을 가진 농민과 상인의 등장은 신분제를 동요시켰고, 양반인구의 증가와 의식의 확대에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유교적 예법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면서 유교적 상장례가 보편적 의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¹⁶

끝으로 20세기 초는 주자가례의 쇠퇴기이다. 19세기 말 이후 신분질서의 와해는 예치의 근본 질서를 흔들리게 함으로써, 禮의 법적인 제반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다. 따라서 유교식 상장례의 절차가 위축되었고, 지석의 제작도 급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적 변화에 따른 지석의 사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도 3>과 같다. 15세기에는 유교식 상장례가 왕실과 외척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지석의 제작량이 적은 편이다. 16세기에 들어 주자가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지석의 제작량이 증가하였고, 17세기는 兩亂



도 2 <白磁陰刻延日鄭氏誌石>, 1520년, 16.1~17.9×23.2~23.8×2.5~3.1cm, 고려대학교박물관



도 3 주자가례 정착에 따른 조선시대 지석의 사용 변화

15 이숙인, 「주자가례와 조선 중기의 제례문화」, 『조선중기 예학과 일상문화—주자가례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pp. 255-257.

16 임민혁, 「朱子家禮를 통해 본 朝鮮의 禮治」,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3호(2000), p. 23.

으로 그 제작량이 다시 감소하지만, 이전 시기보다는 점차 지식의 제작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8-19세기에는 예의 향유계층이 왕실에서 경제력을 가진 상민까지 확대되었고, 양반인구의 증가로 지식의 제작량이 급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초에는 예의 법적인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지식의 제작량도 감소한다.

즉, 지식의 전체적인 사용량 증가는 지식의 매장이 유교식 상례의 절차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의 형식주의를 강조하였던 조선에서는 고려와 달리 유교적 예법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지식의 매장이 일반화 되었고, 자기제 지식의 사용도 증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에 사용된 지식 중 전 시기 동안 자기제 지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다른 재질의 지식에 비해 자기제 지식이 가장 선호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 禮의 二元化와 지식의 제작

주자가례는 禮의 향유계층에 따른 관계를 규정하여, 차등적인 예법 질서 구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조선은 유교식 예제를 정비하면서 국가의례로서의 五禮와 사대부와 상민이 행할 수 있는 유교적 가르침으로써 四禮를 구분하여 예법을 제정하였다.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한 예의 차별화는 계층에 따라 다른 재질의 지식을 사용하게 하였다. 왕과 왕실 직계 자손들은 영창대군의 지식(도 4)과 같이 오석, 대리석 등으로 만든 석제 지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석제 지식의 사용은 왕실에서 제작된 태지석의 대부분이 석제 지식으로 제작된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¹⁷ 반면, 사대부들은 <白磁靑畫興



도 4 <石製陰刻永昌大君誌石>, 1623년, 76.0×107.0×20.0cm, 성남시청

¹⁷ 현재까지 조선 왕릉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으나, 지식의 매장에 관한 사료와 서삼릉 태실에서 확인되는 15-20세기 초까지 왕실의 태지석 모두가 석재로 제작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조선 왕실에서는 석제 지식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金世眞,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 研究」(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 133-144. 부록 1 참조; 조원교, 「조선시대의 墓誌·墓誌銘 研究」, 『삶과 죽음의 이야기 朝鮮墓誌銘』(국립중앙박물관, 2011), p. 233.

寧府大夫人景泰7年銘誌石(1456))(도 1)과 같이 자기제 지석을 사용하였다. 이 지석은 석제 지석과 같은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록 내용 또한 墓誌銘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당시 사대부들이 지향했던 지석의 표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차별화된 예법은 국가차원에서 사대부들의 사치스런 장례문화를 규제하는 葬墳制度로 표현되었다. 太宗 6년(1406) 사대부들의 禮葬에 석실의 사용을 금하고 회격묘를 쓰게 하는 등 석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었다.¹⁸ 그러나 왕실은 물론 사대부 사이에서 석제 지석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17세기가 되자 그 폐해를 지적하기에 이른다. 조선 후기에 들어 석제 지석의 제작으로 인한 폐해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 다음의 사료를 통해 그 일면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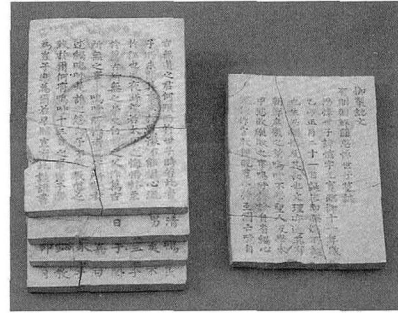
하교하기를, “예전부터 능지(陵誌)는 으레 석각(石刻)으로 하였으나, 인쇄하여 반포하는 즘음에 설만(褻慢)한 폐단이 많이 있는 것이 불경(不敬)한 첫째이고, 대내(大內)에 들인 뒤에 세월이 오래 되면 먼지를 묻히는 것이 불경한 둘째이며, 운반해 가져가는 즘음에 민폐를 많이 끼치는 것이 셋째이고, 광중(曠中)에 묻을 때에도 백성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 넷째이다. 혹 막중한 일에 어찌 민폐를 돌보겠느냐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다. …(중략)… 더구나 구원(久遠)한 도리에 있어서 석지(石誌)가 자기(磁誌)만 못하고,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뜻은 있어도 하유하지 못하였다. 요즈음 고장(古藏) 가운데에서 또 자기 두 조각을 얻었는데, 곧 영릉(寧陵)의 지문(誌文)이었다. 이미 그 뜻이 있었고 또 이 지(誌)를 얻었으니, 지시해서 가르치신 듯하다. 명하여 등록(謄錄)을 상고하게 하였더니, 여주의 영릉(寧陵)에는 대개 석지와 자기 둘을 썼는데, 그때의 하교 가운데에 이미 자지를 쓰라고 하신 것이 있으니, 석각은 버금가는 하교이어야 할 듯하다. 이것으로 우러러 생각하면, 일이 선릉(先陵)에 관계되므로 갑자기 자지를 쓰지 않고 특별히 양본(兩本)을 쓰신 듯하다. 아! 몇 해 뒤에 이 자지를 대내에서 얻고 일기(日記)를 다시 수찬(修撰)한 뒤에 오히려 이 하교가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이 뒤로는 일이 선릉(先陵)에 관계되는 지문(誌文) 외에는 영구히 자지를 쓰고 이것으로 정식(定式)하도록 하라. 아! 이번 하교는 열성(列聖)의 검덕(儉德)을 준수하여 후세에 영구히 전하는 것이니, 뒤의 사왕(嗣王)이 어찌 감히 어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¹⁹

¹⁸ 박형순, 『朝鮮時代 무덤양식』, 『錦江考古』 第2輯(충정문화재단연구원, 2005), pp. 133-134.

¹⁹ 『英祖實錄』 82卷, 英祖 30年 8月 5日 壬子.

教曰自古 陵誌例用石刻而印布之際多有褻慢之弊不敬一也內入之後歲月寢久埋於塵埃不敬二也運取之際多貽民弊三也藏壙之際又將勞民四也或曰莫重之事豈恤民弊此有不然…(中略)…況久遠之道石誌不如磁誌而其來已久有志未

앞의 사료는 석제 지식의 제작과 운반에 따른 폐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17세기부터 이러한 폐단이 대두되면서 석제 지식의 사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났고, 자기제 지식의 사용을 주장하는 의견이 확산되었다.²⁰ 이러한 가운데 왕실에서도 자기제 지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孝宗의 능인 여주 寧陵에서 석제 지식과 자기제 지식이 함께 사용되었던 앞의 기록을 통해, 顯宗 14년(1673)부터는 왕실에서 자기제 지식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제 지식을 대신하여 자기제 지식을 사용한 것은 자기제 지식이 석제 지식보다 제작이 간편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고, 한번 쓰여진 글자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英祖는 왕실에서도 자기제 지식의 사용을 정식으로 함을 공포하였고,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의 지식에 본인이 직접 묘지명을 적어 청화백자지식으로 제작하였다(도 5).



도 5 〈白磁青畫思悼世子誌石〉, 1762年, 16.7×21.8×2.0cm, 국립중앙박물관

즉, 조선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근거한 차별화된 예법에 따라 왕실과 사대부의 예를 이원적으로 적용하였고, 지식의 제작도 예외는 아니었다. 왕과 왕실은 석제 지식을, 사대부는 자기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17세기까지도 석제 지식의 사용이 이어지면서 그 제작과 사용에 대한 폐단이 대두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에서 자기제 지식의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그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論近者古藏中又得磁誌二片卽 寧陵誌文也既有其志又得此誌其若指教 命考曆錄則驪州 寧陵蓋用石與磁兩誌而其時 下教中有旣用磁誌石刻則似當爲次之教以此仰惟, 則似是事關 先陵故不爲遽用磁誌而特用兩本也噫幾年之後得此磁誌於大內更修日記之後猶有此教是豈偶然也此後則事關 先陵外誌文永用磁誌以此定式噫今茲之教遵 列聖之儉德垂後世以永久後之嗣 何敢違焉

²⁰ 『顯宗改修實錄』卷27, 顯宗 14年 6月 20日 戊午.

…上又曰誌石改造事問於宋判府事則以爲舊誌石若有餘地則只當添刻而若無餘地則當用新件云矣壽興曰當初計字排列寧有餘地乎維重日然則新件誌文當用江華石此石品甚堅剛可傳久遠而猶不如燔造者之無模糊磨滅之患臣意則石刻一件備儀用之燔造一件並用爲可矣 上從之

Ⅲ. 朱子家禮의 수용에 따른 磁器製 誌石의 변화

자기제 지식은 형태 및 기록방법, 제작 및 번조법의 변화에 따라 총 4시기로 분류가 가능하다.²¹ 자기제 지식의 변화는 필자가 조사한 조선시대의 지식 350여점 중에서 252점에 해당하는 자기제 지식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²²

자기제 지식의 형태는 크게 평면형, 입체형, 조합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평면형 지식은 장방형의 얇은 도판 형태를 띠는 것이 대부분이며, 19세기에 들어 원판형 지식도 등장한다. 입체형 지식은 불교적 소재가 남아있는 분청사기지식과 일상기명의 형태를 차용한 백지지식으로 구분된다. 조합형 지식은 지식과 함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며, 지식의 형태가 말각방형이나 원판형을 띠고 있다.

1. 제I기 : 15세기(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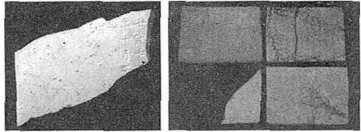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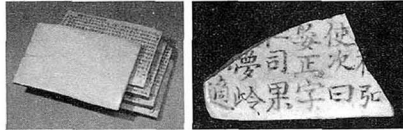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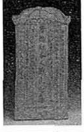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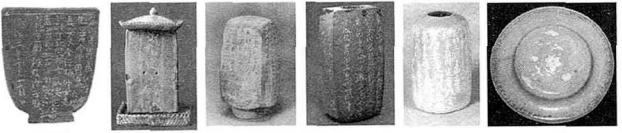
제I기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주자가례를 수용하였던 15세기로 설정하였다. 조선은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유교식 상장례를 채택하였으나, 왕실 및 민간에서는 여전히 불교식 장례가 시행되고 있어 탈불교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이 시기는 상감·철화기법으로 제작된 장방형 분청사기지식이 가장 유행하였다. 이러한 분청사기지식은 충남 공주 학봉리 분청사기가마터와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가마터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²³ 이와 더불어 불교적 소재가 담긴 독특한 형태의 입체형 분청사기지식도 많이 나타나며, 소수의 음각·청화·철화백지지식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21 다만, 자기제 지식의 변화는 각 시기에 따라 완전히 분절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분기를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도자사 시기구분과는 차이가 있으며, 어디까지나 주자가례의 수용에 따른 자기제 지식의 변화라는 점을 전제하고 본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22 金世眞, 앞의 논문(2009), pp. 133-144, 부록 2 참조.

23 공주 학봉리 분청사기가마터에서는 〈粉靑沙器귀얄鐵書成化23年銘誌石片(1487)〉, 〈粉靑沙器귀얄鐵書弘治3年銘誌石片(1490)〉, 〈粉靑沙器귀얄鐵書嘉靖15年銘誌石片(1536)〉등이 출토되었고,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가마터에서는 〈粉靑沙器象嵌成化丁酉銘誌石片(1477)〉이 확인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계룡산도자기』(2007);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1993).

표 1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의 시기적 변천(제1기: 15세기)

형태		재질	분 청 사 기	백 자
평 면 형	상감			
	장방형			
	청화			
	철화			
	위패형	상감		
입 체 형	병형	철화		
	기타	상감		

2. 제Ⅱ기 : 16-17세기(표 2)

제Ⅱ기는 주자가례가 변용·확산되는 16-17세기이다. 이 시기는 유교식 상례의 실천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사대부들의 답문활동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대부들은 문중과 가문을 중심으로 유교식 상장례를 충과 효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제Ⅱ기에는 분청사기지식의 제작이 현격히 줄어들어 음각분청사기지식만 일부 확인된다. 이 시기는 장방형 백자지식의 제작이 증가하였고, 관요를 중심으로 생산된 음각백자지식이 크게 유행하였다.²⁴ 특히 자기제 지식의 사용이 사대부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내용을 기록한 여러 장의 백자지식이 제작되었다. 이에 따라 편수를 나타내기 위해 지식의 上段에 “숫자”나 “天·地·玄·黃”의 銘文을 넣어 제작하기도 하였다.²⁵ 제Ⅱ기에는 제Ⅰ기보다 많은 청화·철화백자지식이 제작되지만, 청화안료의 발색이 좋지 못하며 철화안료는 글자가 뭉치거나 번지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입체형 백자지식의 제작이 시작되었다.

3. 제Ⅲ기 : 18-19세기(표 3)

제Ⅲ기는 주자가례가 완전히 정착되는 18-19세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유교식 상례의 이론과 실천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많은 가례서의 편찬으로 유교식 상례가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왕실에서 자기제 지식의 사용을 권고함과 동시에, 상품경제의 발달로 경제력을 가진 상민층의 성장과 양반인구의 증가 및 의식의 확대로 자기제 지식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청화백자지식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청화안료의 발색이 좋아진다. 특히, 장방형 백자지식이 규격화되며, 토제 지식의 영향으로 정방형 자기제 지식도 제작된

²⁴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경기 광주 변천리 5호에서 〈白磁陰刻嘉靖33年銘誌石片(1554)〉과 변천리 9호에서 〈白磁陰刻嘉靖壬子年銘誌石片(1552)〉등이 출토되었다.

²⁵ “天·地·玄·黃”의 銘文은 『世宗實錄』卷106, 世宗 26年 11月 13日 戊子의 기록을 통해 순서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白磁陰刻李孝訓誌石(1621)〉 뒷면의 “天·地·玄·黃”은 각각의 글자마다 기재된 위치가 다르다. “天”字는 장방형 지식의 중앙부에 한 글자만, “地”字는 지식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 한 글자, “玄”字는 각 모서리에 한 글자씩 기재되어 있다. “天·地·玄·黃”은 “하늘은 검고 땅을 누렇다.”라고 해석되어, “天和玄”, “地和黃”이 문구를 이룬다. 즉, “天”은 하늘을 의미하여 지식의 가운데 기록하였으며, “玄”은 넓고 검은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네 방향의 귀퉁이에 배치하였다. “地”는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왼쪽 아래 모서리에 위치하고, “黃”은 지식의 뒷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드넓은 대지를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지식의 뒷면에 새겨진 “天·地·玄·黃”의 명문은 당시의 우주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의 시기적 변천(제11기: 16~17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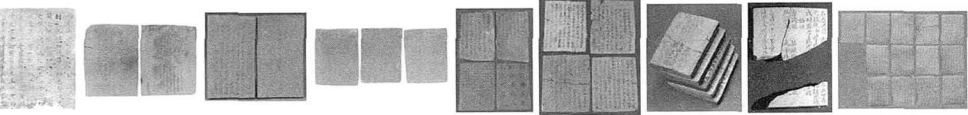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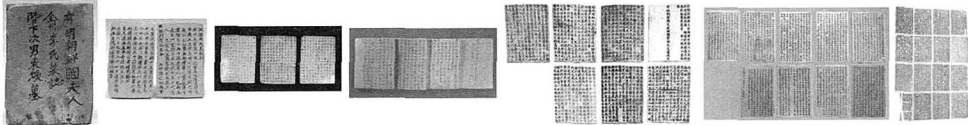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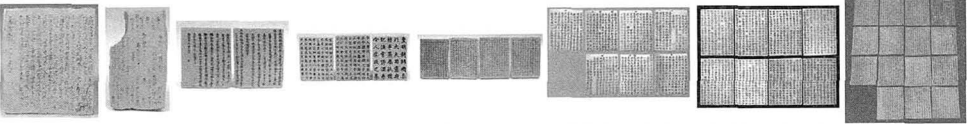




형태		재질	분 청 사 기	백 자
평면형	음각			
	청화			
	철화			
입체형	종상감			
	음각			
	철화			
	기타			

표 3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의 시기적 변천(제III기 : 18 - 19세기)

형태		재질	백	자
평면형	방형	청화		
	철화			
	원판형	철화		
입체형	중형	철화		
	원통형	청화		
	기타	철화		
대접형	기타	청화		
	기타	철화		
	기타	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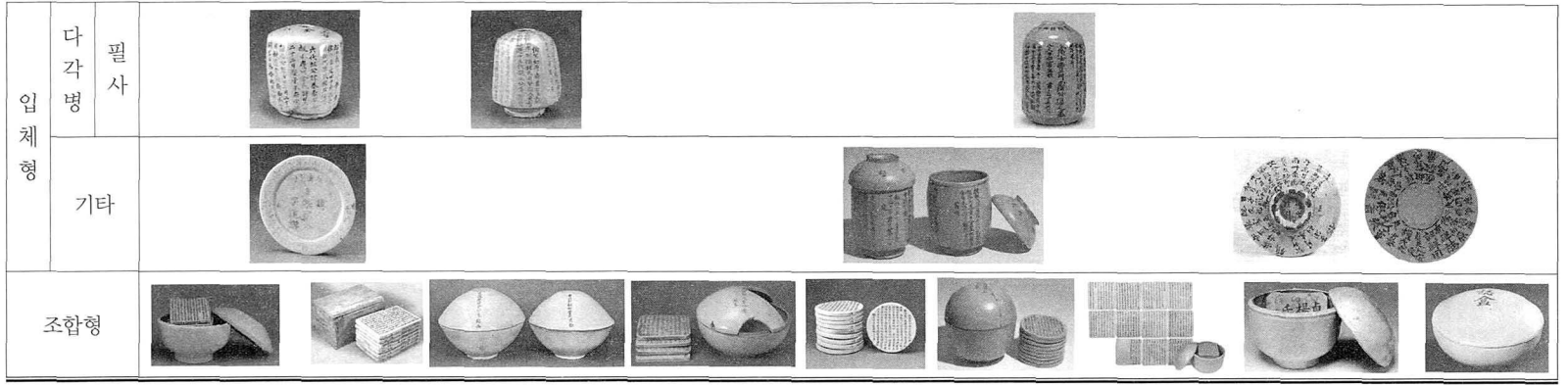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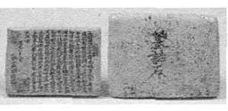



표 4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의 시기적 변천(제Ⅳ기 : 20세기 초)

형태		재질	백	자
평면형	장방형	청화		
	대접형	목서		
입체형	원통형	청화		
	연상형			

다. 또한 일상용기를 차용한 다양한 형태의 백자지석이 출현하였으며 대부분 鐵畫·墨書技法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자기제 지석은 경제력을 가진 상민층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자기제 지석이 18세기에 들어 일상기명의 형태를 모방하는 것은 당시 제기가 일상용기의 형태를 차용 하였던 것과 범주를 같이 하는 것이다. 18세기 후반 조합형 지석의 증가로 원관형 백자지석도 제작되었고, 지석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자기제 합이나 木函은 상민층과의 차별을 두기 위한 사대부층의 지구책으로 생각된다.

4. 제Ⅳ기 : 20세기 초(표 4)

제Ⅳ기는 주자가례가 쇠퇴하는 20세기 초로 볼 수 있다. 신분질서의 와해로 禮의 법적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면서 유교식 상장례가 쇠퇴한다. 이 시기의 백자지석은 그 제작량이 현격히 줄어들며, 형태 역시 이전 시기보다 단순해져 세장방형과 원통형 등만 제작된다. 지문 내용 또한 표제문만 기록하여 단편화된다. 반면, 墓道가 첨가된 연상형 백자지석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 시기는 옹기제 지석이나 사용하던 벼루, 향아리에 내용을 기록하여 지석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피장자를 알려주기 위한 장례도구로서 지석이, 단순한 부장품의 의미로 쇠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IV.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의 특징

1. 제작과정의 특징

1) 見樣의 사용

조선시대에는 전 기간에 걸쳐 자기제 지석의 제작량이 가장 많으며, 그 뒤로 석제 지석, 토제 지석 순으로 유통되었다. 그렇다면 자기제 지석은 어떻게 제작되었을까. 朴世堂이 저술한 『西溪先生集』에는 자기제 지석의 제작에 관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 誌石의 견본 옛 것이 있어 태유가 말하길 지금 만든 것의 크기가 이와 같다고 한다. 나는 그 가운데 1행 19자가 지나치게 세밀한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했으나, 굳은 20자도 작지 않다고

하니 의견의 차이가 이와 같구나. 형태는 작게 하려하고 글자는 크게 하려하니 자획이 겹쳐 모양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최근 금석 전각의 큰 병폐인데 하물며 글자가 번져 쉽게 서로 섞이는 데 있어서는 어떠하겠는가. 글의 짜임새가 불명확해지면 필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 내 생각으로는 글자의 획을 성기게 하고 행 내의 글자를 트이게 써서 그 형태와 수가 점점 커지고 많아질지언정 구차히 이루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²⁶

위의 기사에서는 당시 자기제 지식 중 장방형 지식은 見樣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자기제 지식 역시 다른 도자기와 같이 견양을 통해 제작되었고, 그 규격 및 양식이 정례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방형 지식의 경우, 17세기까지는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지만, 18세기에 들어 제작된 청화백자지식은 가로 13~15cm, 세로 20~23cm, 두께 1~1.5cm로 완벽한 규격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주문제작의 방식

사대부들은 자기제 지식 중 백자지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청화백자지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일부 사대부들은 청화백자지식을 구입하기 위해, 分院을 방문하여 장인과 흥정한 뒤, 사변을 통한 주문생산의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趙世煥日記』나 金昌協의 『農巖集』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²⁷ 특히 『農巖集』에 기록된 지식은 〈白磁靑畫領議政金壽恒誌石(1699)〉으로, 제작연대가 『農巖集』(1699)의 기록과 일치한다.²⁸

²⁶ 朴世堂(1629-1703) 『西溪先生集』卷之18 簡牘 寄家姪泰素.

燻誌見樣. 此處有舊者. 泰維云今所造者大小同. 此吾以此中所有一行十九字. 嫌其過細. 而君以二十字爲不甚小. 意見之異如此耶. 旣欲其樣小. 又欲其字大. 所以字劃接疊. 不成模樣. 最是近代金石鐫勒之大病. 況燻字漬漫. 易於相混. 若問架不明. 必不得好. 吾意欲其字內劃疏. 行內字疏. 故雖稍大其樣而多其數. 不欲苟就耳. 乙卯四月廿三日

²⁷ 『趙世煥日記』1, 宋贊植, 「官廳手工業의 民營化過程 -分院과 造紙署의 경우-」, 『朝鮮後期 社會經濟史의 研究』(일조각, 1996), pp. 385-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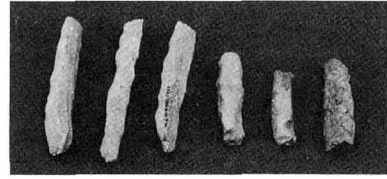
金昌協(1651-1708) 『農巖集』卷之二十六 贊銘 雜器銘

己卯夏. 爲燻先誌. 往廣州窯所. 間命工人作數種器皿. 因各爲之銘. 以寓古人儆戒之意. 非義而食. 則近盜賊. 不事而飽. 是爲螟蠶. 每飯必戒. 無有愧色.

²⁸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일지사, 2000), p. 79.

3) 자기제 지식의 성형과 번조

자기제 지식은 평면형 또는 입체형으로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평면형 지식은 수비를 마친 점토를 반죽하여 棒形 막대기를 이용해 일정한 두께로 납작하게 밀어 판형으로 제작한다. 그 다음 일정시간 건조한 뒤, 음각이나 필사의 방법으로 내용을 기록하였다. 평



도 6 廣州 樊川里 5號 출토 막대형도침,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면형 지식의 번조방법은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바다에 가는 모래를 깔 뒤, 시유를 마친 장방형 지식의 측면을 바다에 세워 번조하는 것으로, 15-16세기의 백자지식에서 다수 확인된다. 또 다른 방법은 2-4개의 막대형 도침 위에 가는 모래를 받치고, 그 위로 자기제 지식을 올려 번조하는 것으로, 16세기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번조법이다. 이때 사용된 막대형 도침은 京畿道 廣州 樊川里 5호(도 6)와 樊川里 9호, 鶴東里 14호 등의 가마터에서 출토되었다.²⁹⁾

입체형 지식은 대부분 물레를 이용하여 원통형, 종형, 대접형 등으로 제작하였다. 입체형 지식의 경우 일상용기처럼 저부에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한 예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포개구이 한 경우도 관찰된다.

2. 지문 기록방법별 특징

1) 기록방법의 특징

자기제 지식의 지문 기록방법은 상감·음각·청화·철화·동화·묵서기법 등이 있으며, 당시 유행한 도자기의 시문형태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자기제 지식에서 알아본 기록방법의 상·하한연대를 일반기명에서 나타나는 시문기법의 상·하한연대와 비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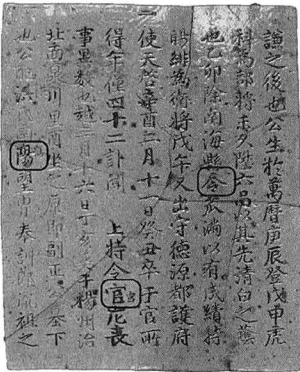
상감기법으로 제작된 자기제 지식은 15세기에는 상감분청사기지식에 집중되고, 15세기 중반~16세기 전반까지는 소수의 평면형 상감백자지식으로 제작되었다. 일상용기의 제작에 있어

²⁹⁾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廣州朝鮮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樊川里5號·仙東里 2, 3號-(1986);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2007), p. 126;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 表調査報告書 解説篇』(2000), p. 182;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 表調査報告書 圖版篇』(1998), p. 215.

서도 15세기에는 분청사기를 중심으로 상감기법을 사용하였고, 15세기 후반~16세기에는 광주 도마리나 변천리 5·9호 등을 중심으로 상감백자의 제작이 이루어졌다.³⁰ 가마터에서 자기제 지석이 출토된 경우는 없지만, 자기제 지석에 나타난 상감기법의 연대를 일상기명과 비교하면, 그 상·하한연대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각백자지석은 15세기말~1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15세기 후반에 제작된 소수의 음각백자지석은 대체로 가로가 긴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刻手한 깊이는 매우 얇은 편이다. 이후 16세기에 제작된 음각백자지석은 세로가 긴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각 수한 글자의 깊이가 15세기 후반의 글자에 비해 깊어졌다. 17세기의 음각백자지석은 태토의 수비 상태나 유약의 용융상태가 좋지 못하여 유약이 박락된 경우가 많다.

일부 음각백자지석은 음각으로 지문을 기록한 뒤, 그 위에 철화안료를 삽입한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글자가 잘못 기록되었거나 잡물에 의해 글자가 뭉그러졌을 때 수정을 하거나 전체의 글자를 더욱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 철화안료를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도 7).



도 7 <白磁陰刻李孝訓誌石>, 1621년, 20,5×25,9×1,5cm, 충북대학교박물관



도 7 세부①



도 7 세부②



도 7 세부③

일반기명에서의 음각기법은 주로 굽의 안바닥에 새겨진 銘文에서 확인된다. 15세기 후반~16세기에 우산리, 도마리, 변천리 등에서 “天·地·玄·黃”이 기록된 명문도편이 확인되며,³¹ 17세기에는 선동리, 송정리 등에서 “左·右”에 干支, 숫자를 더한 도편이 출토되었다.³² 그러나 일

30 國立中央博物館,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道馬里 1號 窯址-』(1995);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앞의 책(1986);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앞의 책(2007).

31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附 廣州 牛山里9號窯址 發掘調査報告書』(1993);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책(1995).

32 조선관요박물관, 경기도 광주시, 『광주 송정동 5·6호 백자가마터』(2008).

상기명에서 나타나는 음각기법은 유면을 긁어내어 기록한 방법으로, 음각백자지석에 나타난 기록방법과는 차이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화백자지석은 15세기 중반~20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최초의 청화백자지석은 〈白磁靑畫興寧府大夫人景泰7年銘誌石(1456)〉(도 1)이며, 16세기의 청화백자지석은 철화 안료의 발색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질이 좋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양질의 청화백자지석이 다량 제작되면서 이러한 양상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진다.

청화백자는 15세기 후반~20세기 초까지 나타난다. 15~16세기에는 우산리, 도마리, 번천리, 17세기에는 선동리, 궁평리 등에서 소수의 청화백자가 생산되었다.³³ 18세기에는 분원리에 관요가 고정되면서 청화백자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양상은 자기제 지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⁴ 그러나 17~18세기 중반까지 일상기명의 청화백자 생산은 감소하였으나, 청화백자지석의 제작량이 증가하였던 점은 일상용기의 제작과는 차이가 있다.

철화기법이 사용된 지석은 소수의 분청사기지석과 백자지석으로, 15세기 후반~19세기까지 제작·유통되었다. 〈白磁鐵畫尙膳監大監鄭善誌石(1468)〉은 현전하는 最古의 철화백자지석으로 15세기의 가마터에서 철화백자가 출토된 사례가 없어 그 존재가 주목된다. 17세기 이전까지의 철화백자지석은 대부분 안료가 번져있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편이다. 반면, 17세기에 들어 송정리, 선동리 등을 중심으로 철화백자의 생산이 증가하면서,³⁵ 양질의 철화백자지석이 제작되기 시작한다. 18~19세기가 되면 장방형 지석보다 입체형 철화백자지석이 다량 확인된다. 특히 19세기에 들어 관요를 중심으로 철화백자의 생산이 감소하였던 반면, 지방가마를 중심으로 철화백자의 생산이 증가하였던 점으로 보아, 19세기의 입체형 철화백자지석의 제작은 지방의 백자가마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동화기법으로 제작된 지석은 그 수가 매우 적으며, 대부분 점시형지석에 지문을 기록하였다. 그 예로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에 소장된 〈白磁銅畫崇禎甲子銘誌石(1684)〉이 있다.³⁶

³³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앞의 책(2007);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앞의 책(1986);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앞의 책(2000);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앞의 책(1998).

³⁴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경기도 광주시, 『조선시대 마지막 官窯 廣州 分院里 白磁窯址』(2006).

³⁵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앞의 책(2000);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앞의 책(1998); 조선관요박물관, 경기도 광주시, 앞의 책(2008).

³⁶ 양승률·홍승주, 「白磁銅畫崇禎甲子銘점시형묘지에 대한 고찰」, 『도시역사문화』 5(서울역사박물관, 2006), pp. 175-193.

표 5 자기제 지식과 일상기명의 기록(시문)방법 변화

기록(시문)방법		제 I 기		제 II 기		제 III 기		제 IV 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초	
상 감	지식		■					
	일상기명		■					
음 감	지식		■	■				
	일상기명		■	■				
청 화	지식		■	■	■	■	■	■
	일상기명		■	■	■	■	■	■
철 화	지식		■	■	■			
	일상기명			■	■	■		
동 화	지식				■			
	일상기명					■		
묵 서	지식					■	■	■
	일상기명		■	■	■	■	■	■

묵서백자지식의 대부분은 18세기 말~20세기 초까지 제작되었다.³⁷ 묵서기법을 사용한 지식은 대접의 내면에 표제문을 간략하게 적은 형태와 硯箱形 誌石에 묘도를 첨가하여 만든 형태로 나뉜다. 이러한 묵서백자지식의 사용은 주자가례의 확산으로 유교식 상장례가 보편화되면서, 대량 생산해두었던 자기제 지식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6가지 기록(시문) 방법이 자기제 지식과 일상기명에 사용된 기간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6가지 기록방법은 자기제 지식과 일상기명의 시문기법에서 조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제 지식의 제작량이 일반기명의 전체 제작량에 극히 일부분이지만, 자기제 지식은 편년자료로써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일정한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도자기 시문기법의 상·하한연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³⁷ 광주 변천리 9호에서 출토된 음각백자지식 뒤에는 묵서기법으로 내용을 기록한 흔적이 있다.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앞의 책(2007), pp. 178-180.

2) 서체의 특징

자기제 지식에 지문을 기록한 서체 역시 당시의 서예사와 그 범주를 같이 하고 있다. 고려 말 유입되었던 조맹부체는 안평대군을 비롯하여 조선전기 문화계를 선구한 훈구파들의 심미관과 잘 어우러져 세종~성종연간에 크게 유행하였다. 특히, 세종·세조연간에 왕실에서 서예를 강조하였던 기록이 있으며,³⁸ 조맹부체의 인쇄와 보급이 활발하였다. 이 시기 훈구파는 “詩書畫一致論”을 주장하며, 글씨를 잘 쓰는 것이 사대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종연간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중앙정계 진출이 시작되자, 사람들에게 의한 왕희지체로의 회귀와 “玩物喪志論”이 대두되면서 훈구파의 기교적 글쓰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³⁹ 특히 이 시기의 서체에 관한 논쟁이 조맹부체와 왕희지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표면화되었다.⁴⁰ 성종은 조맹부체를 잘 쓴 군주였으나,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사림파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조맹부체의 대한 반성과 왕희지체로의 회귀하려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조선전기의 서체 변화를 통해, 광주 우산리 9-3호에서 출토된 <白磁陰刻壬寅銘誌石片>과 <白磁靑畫司果銘誌石片>의 제작시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白磁陰刻壬寅銘誌石片>은 연구자에 따라 “壬寅”의 간지를 1482년과 1542년으로 다르게 보고 있어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白磁陰刻壬寅銘誌石片>과 <白磁靑畫司果銘誌石片>을 15세기의 대표적인 자기제 지식과 비교하고, 나아가 변천리 9호에서 출토된 <白磁陰刻嘉靖壬子銘誌石片(1552)>을 비롯한 16세기 중반의 자기제 지식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자(표 6).

<夢遊桃園圖>의 안평대군 題跋과 국립제주박물관에 소장된 <前赤壁賦(13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맹부체는 글자의 형태가 정방형의 납작한 서체로 안정감을 주며, 필획이 두껍지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고, 획 끝이 무디게 마무리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⁴¹

이러한 특징은 <白磁陰刻壬寅銘誌石片>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白磁陰刻壬寅銘誌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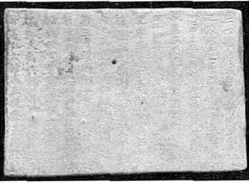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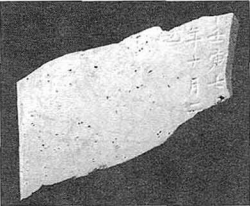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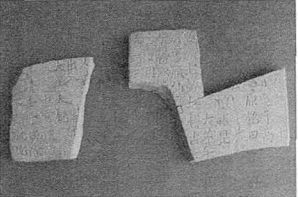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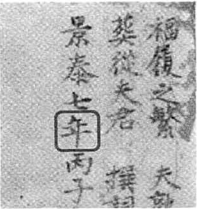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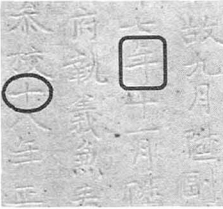







38 李英蘭, 「朝鮮前期 書風の 變貌樣相 研究—왕희지와 조맹부 서체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pp. 40-42.

39 玩物喪志란 外物에 빠져 內心을 해친다는 말로, 외물은 진기한 물건에서부터 오락과 심신을 즐겁게 하는 모든 물욕적, 정신적, 오락적 향유를 말하며, 내심은 도덕적 수양 또는 유가적 이상의 추구를 말하는 것이다. 『尙書』「旅獒」卷7 “玩人喪德 玩物喪志 志以道寧 言以道接”

40 李英蘭, 앞의 논문(2006), p. 65.

41 李英蘭, 앞의 논문(2006), p. 22.

표 6 <白磁陰刻壬寅銘誌石(1482)>과 자기제 지식 및 서체 비교

<p>白磁靑畫興寧府夫人 景泰7年銘誌石(1456) 25.8~27.1×35.7~38.2×1.4~1.7cm, 高麗大學校博物館</p>	<p>白磁陰刻李命崇誌石(1484) 19.5×28.6×2.2cm, 忠北大學校博物館</p>	<p>白磁陰刻壬寅銘誌石片(1482) 광주 우산리 9-3호 출토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p>	<p>白磁陰刻延日鄭氏誌石(1520) 16.1~17.9×23.2~23.8×2.3~3.1cm, 高麗大學校博物館</p>	<p>白磁陰刻嘉靖壬子銘誌石片(1552) 광주 번천리 9호 출토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p>
				
				
				
<p>조맹부가 쓴 <前赤壁賦>, 13세기, 국립제주박물관</p>	<p><夢遊桃園圖>, 1447년, 안평대군 題跋</p>	<p>白磁靑畫司果銘誌石片, 광주 우산리 9-3호 출토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p>	<p>왕희지가 쓴 <東方朔畫贊>, 동진(4세기), 국립제주박물관</p>	

片)의 글자 중 “年”을 〈白磁靑畫興寧府大夫人景泰7年銘誌石(1456)〉과 〈白磁陰刻李命崇誌石(1484)〉에서의 “年”과 비교한 결과, 3점의 지석에 기록된 “年”의 필체가 모두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白磁陰刻壬寅銘誌石片〉과 〈白磁陰刻李命崇誌石(1484)〉은 글자의 각수 깊이도 유사하며, “月”, “十”字도 상당히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白磁靑畫司果銘誌石片〉 역시 장방형의 납작한 서체로 기록되어 조맹부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²

16세기에 유행한 왕희지체는 필체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좁은 장방형으로, 전체적인 글자가 세로로 길어 보인다. 또한 필획이 상당히 날카롭게 뾰여있으며, 획 끝의 빼침이 길고 가늘게 마무리되어 있다.⁴³

1520년에 제작된 〈白磁陰刻延日鄭氏誌石〉의 “年”의 필체를 〈白磁陰刻壬寅銘誌石片〉의 “年”과 비교하면 획의 위치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필획의 끝이 강하게 뾰여 있어 왕희지체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번천리 9호에서 출토된 〈白磁陰刻嘉靖壬子銘誌石片(1552)〉의 서체 역시 장방형의 긴 서체로 왕희지체의 특징을 보여주며, 지석에 기록된 “十”字를 15세기에 제작된 자기제 지석과 비교해보면, 각수의 깊이와 필체의 모양이 확연히 구분된다.

즉, 〈白磁陰刻壬寅銘誌石片〉의 刻手 깊이, 필체의 모양(너비) 등 서체를 분석해 본 결과, 15세기 후반의 백자지석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白磁陰刻壬寅銘誌石片〉의 干支가 가리키는 해는 1482년으로 추정되며, 우산리 9-3호는 15세기 후반에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⁴

3. 지문 내용상의 특징

조선시대 지석의 내용구성에 따른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전 기간에 걸쳐 “표제문+지문”이 함께 기록된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 여기서 표제문이란 지석에

⁴² “司果”의 관직명은 세조 12년(1466) 군대조직 개편으로 제정된 정6품 무관직으로 그 상한을 1466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앞의 책(1993), p. 35.

⁴³ 李英蘭, 앞의 논문(2006), p. 69.

⁴⁴ 李英蘭은 조맹부체와 왕희지체의 수용과 변화양상에 주목하여 두 서체를 향유한 훈구파와 사림파의 문예관 차이와 연관시켜 서체의 유행시기를 설정하였으며, 조맹부체의 유행은 세종~성종연간, 왕희지체는 그 이후로 보고 있다(李英蘭, 앞의 논문, 2006). 필자 역시 15-16세기의 자기제 지석에 나타나는 서체의 특징을 통해, 〈白磁陰刻壬寅銘誌石片〉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동반되는 도자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고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⁴⁵ “有”는 조사로, 有明은 명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기록된 誌文의 내용 중 제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有明~”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표제문은 조선의 대외관계에 따라 변화하였다. 明을 사대국으로 인정했던 15-17세기 중반까지는 표제문은 “有明+朝鮮國+贈~”으로 기록하였다.⁴⁵ 明이 멸망하고 淸이 건국되면서 조선은 尊華攘夷를 내세우며,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청을 배척하였다. 이후 小中華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有淸”과 같은 청나라와 관련된 문구 없이 표제문을 “朝鮮國+贈~”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표제문의 변화는 효종 즉위년 인조의 국상에서 청의 시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 시작하여 사대부층으로 내려온 것으로 판단된다.⁴⁶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식의 제작량도 증가하고, 다양한 내용구성 방식이 나타난다(표 8). 이것은 신분제 동요에 따른 양반인구의 증가로 지식을 사용하고자 했던 수요층이 증가하였지만, 새로운 수요층은 삶의 행적을 길게 기록할 내용이 없어 다양한 내용구성 방식으로 표현

표 7 지식의 내용구성에 따른 시기적 변화

내용 구성 \ 시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초	총 계(개)
개석문					2		2
개석문+표제문+지문				2	1	1	4
개석문+지문		1				1	2
개석문+지문+명문					1		1
개석문+지문+묘도						6	6
표제문	1	3		4	16	4	28
표제문+지문	21	36	19	63	53	13	205
표제문+지문+명문	2	9	8	18	5		42
표제문+지문+좌향					1		1
지문	2	3	2	3	2		12
표제문+좌향					9	3	12
총 계(개)	26	52	29	90	90	28	315

⁴⁶ 『孝宗實錄』卷1, 孝宗 卽位年 8月 23日 庚戌.

…毋視泛常焉嗚呼雪恥復讐實 先王雅志而無可與計事終莫之展焉豈非今日所當體念者哉日今所刻玉册誌石乃 宗廟百世所傳之器玄宅終天所藏之物今若一誤後悔莫及臣欲望 聖明惕然感悟特命有司竝勿書年號凡喪葬祭祝亦只用歲月以伸 先王當日之心則 殿下繼述之孝可以格天感神而永有辭於後世矣 上下密教于政院令大臣議之政院以秘事不宜形諸文字循例收議請別遣承旨親詣諸大臣家面議以定俾無煩世之患 從之仍 下教曰原疏亦勿煩番領敦寧府事金尙憲獻議曰趙贊疏中玉册誌石宜不刻年號今不用其言則後雖欲改事將難及領議政李景奭等議亦如之遂 從之…

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표제문과 지문, 漢詩[銘文]를 찬한 墓誌銘의 형식을 갖춘 지식도 제작되었다. 이러한 銘文은 당대의 문장가들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맥과 가문으로 연결된 고위 관직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품계에 따른 자기제 지식의 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관등에서 장방형 지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9). 이것은 관직고하를 떠나 전통적인 석제 지식의 형태를 따르려고 했던 사대부의 보수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수량이 될 수 있는 종6품이상의 관직자 대부분은 장방형 지식을 선호하였고, 당상관 이상에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품계에 따른 지식의 지문 기록방법 변화는 청화백자지식이 고위 관직자에게 가장 선호되

표 8 품계에 따른 내용구성의 변화

내용 구성	품 계									총 계 (개)
	정 1 품 종 1 품	정 2 품 종 2 품	정 3 품 종 3 품	정 4 품 종 4 품	정 5 품 종 5 품	정 6 품 종 6 품	정 7 품 종 7 품	정 8 품 종 8 품	정 9 품 종 9 품	
개석문	1									1
개석문+표제문+지문		2								2
개석문+지문+명문	1									1
개석문+지문+묘도			2						1 3	6
표제문		3 1	5		1			2	2	15
표제문+지문	11 14	10 16	28 11	2 7	10 2	4 3		1	7 6	132
표제문+지문+명문	7 3	3 5	7		3				1	31
표제문+지문+좌향				1		1				1
지문	1		2							3
표제문+좌향		1 3	1						1	6
총 계(개)	42	42	56	10	16	8		3	21	198

표 9 품계에 따른 지식의 형태 변화

형 태		품 계									총 계 (개)
		정 1 품 중 1 품	정 2 품 중 2 품	정 3 품 중 3 품	정 4 품 중 4 품	정 5 품 중 5 품	정 6 품 중 6 품	정 7 품 중 7 품	정 8 품 중 8 품	정 9 품 중 9 품	
평 면 형	장방형	18	13	22	1	11	1		2	5	132
		15	21	10	4	1	4			4	
	정방형			6		1				1	20
		3	1	3	2					3	
	원판형			2		1					3
	위패형					1					1
기 타	1	1	4					1		9	
입 체 형	종 형				1				1	5	
		1	1		1						
	원통형		1			1				3	8
			1		1					1	
	대접형			1							1
기 타			5						1	13	
	1								6		
조 합 형	1	4	1							8	
	1										
총 계(개)		41	43	54	11	16	7		3	25	200

있음을 알려준다(표 10). 세조가 자신의 최측근 인물인 右議政 李思哲(1405-1456)에게 1456년 청화백자를 하사하였고,⁴⁷ 장모였던 仁川李氏의 지식도 청화백자로 제작하는 등 당시 왕실과 고위 관직자를 중심으로 청화백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화백자지식은 조선전기부터 신분적 차별의 상징물이자 사치품으로 인식되어, 전 시기를 걸쳐 왕실 및 고위 관직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형태 변화에 있어서도 청화백자지식은 대부분 장방형으로 제작되었던 것에 반해, 철화백자지식은 일상용기를 차용한 형태로 제작되었던 차이점이 있다. 이것은 청화안료가 철화안료보다 고위 관직자에게 더욱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청화안료가 철화안료보다 상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10 품계에 따른 지식의 기록방법 변화

기록방법 \ 품 계	정 1 품	정 2 품	정 3 품	정 4 품	정 5 품	정 6 품	정 7 품	정 8 품	정 9 품	총 계 (개)
	중 1 품	중 2 품	중 3 품	중 4 품	중 5 품	중 6 품	중 7 품	중 8 품	중 9 품	
상 감		2		1						7
	1	1	2	1						
음 각	1	2	6	3	1	1				26
	3	4	1	1	1	2				
청 화	12	10	16		12			2	4	95
	11	11	7	2	1	2			5	
철 화	1	3	6	1		1		1	3	26
	1	5	1	1						
묵 서			3						1	6
									2	
총 계(개)	30	38	42	10	15	8		3	15	160

지식 주인공의 신분계층에 따른 자기제 지식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3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왕실은 유교식 상장례의 첫 향유자이자 선구자였다. 그들은 차별화된 예의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 장방형의 석제 지식을 사용하면서 墓誌銘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이후 사치스러운 장례문화를 지양했던 국가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기제 지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사대부층은 16세기부터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그들에 관한 예법을 답문활동을 통해 규정하면서, 조선의 시속과 알맞게 적용하여 충과 효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사대부들은 장방형의 음각백자지식에서 청화백자지식으로 자기제 지식의 사용을 확대하였다. 또한 18세기 이후 신분제의 동요에 따른 양반인구의 증가와 의식의 확대로 유교식 禮를 수용했던 향유층이 경제력을 가진 상민까지 확대되었고, 그들 역시 자기제 지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민들은 장방형 청화백자지식보다는 일상기명의 형태를 차용한 철화·묵서백자지식을 사용하였으며, 기록한 내용도 소략한 편이었다.

47 『世祖實錄』卷4, 世祖 2年 7月 28日 乙未.

右議政李思哲久病新差兵曹判書申叔舟會一時同赴朝者訪於其第 上聞之命都承旨朴元亨齋酒饌往 賜之仍賜樂又 命宦官田昉賜內醢內羞全柳鰾一箇青畫兒大鍾一事草綠段子塔胡一領思哲因出前賜赴京圖屏風張之座右極歡乃罷

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자기제 지식의 제작 배경과 변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자기제 지식의 제작 배경은 두 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자가례가 수용됨에 따라 유교식 상장례제도가 정착되었고, 그에 따라 지식의 매장이 일반화되면서 지식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8세기 이후 양반인구의 증가와 의식의 확대는 유교식 상장례를 실천하고자 했던 향유층의 증가로 이어졌고, 자기제 지식의 사용 역시 증가하였다. 둘째, 성리학에 근거한 차별화된 예법에 따라 지식의 제작이 이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왕실은 석제 지식, 사대부는 자기제 지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치스러운 장례문화의 규제와 석제 지식의 제작 및 사용에 따른 폐단이 대두되면서 왕실은 자기제 지식의 사용을 권고하였다. 의례적, 형식적인 면을 강조한 유교문화가 유입되었던 조선은 중국에서보다 성리학의 형식주의적 경향이 심화되어 상장례제도와 같은 의례가 더욱 강조되었고, 장례도구의 하나인 지식의 사용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자기제 지식은 15세기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장방형 자기제 지식은 見樣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18세기에 들어 완벽한 규격화가 이루어졌다. 15세기에는 상감분청사기지석이, 16-17세기에는 음각백자지석이, 18-19세기에는 청화백자지석이 유행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시문기법의 상·하한연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서체의 변화를 통해, 우산리 9-3호 출토(白磁陰刻壬寅銘誌石片)의 干支를 1482년으로 해석하여 가마의 운영시기를 15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자기제 지식의 사용계층 분석으로 장방형 청화백자지석은 정3품이상의 당상관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청화안료가 왕실 및 고위 관직자를 중심으로 향유하는 전유물이자 과시품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대부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던 자기제 지식은 내용의 기술이나, 형태의 변화에서도 관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조선이 엄격한 계급적 사회였음을 나타내는 지표의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자기제 지식의 지문 및 사찬사료를 분석하여 재료의 수급 등 자기제 지식의 제작과 관련된 연구와 함께 조선시대의 墓制에 따른 지식의 종류 및 형태의 변화와 출토되는 名器를 통한 검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태지석, 가마터와의 관계까지 규명할 수 있도록 연구에 정진하도록 하겠다.

*주제어(key words) _ 磁器製 誌石(Porcelain epitaph tablet), 朱子家禮(Zhu Xi's Principles for Home Rites), 儒教式 喪葬 禮制度 (Confucian funeral service systems), 廣州 牛山里 9-3號 (Guang-ju Usan-ri Kiln No.9-3), 靑畫白磁 (blue and white)

■ 투고일 2011년 5월 22일 | 심사개시일 2011년 6월 8일 | 심사완료일 2011년 8월 25일 ■

참고문헌

1. 사료 및 문집

『經國大典』

『宣祖實錄』

『世祖實錄』

『世宗實錄』

『英祖實錄』

『太祖實錄』

『顯宗實錄』

『孝宗實錄』

金昌協(1651-1708)『農巖集』

박세당(1629-1703)『西溪先生集』

2. 단행본

강경숙, 『韓國陶磁史』, 一志社, 1989.

_____,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SIGONG ART, 2005.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_____, 『양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李範稷, 『朝鮮時代 禮學研究』, 國學資料院, 2004.

朱熹 著, 임민혁 譯, 『朱子家禮』, 예문서원, 1999.

3. 논문

권소현, 『朝鮮時代 象嵌白磁의 編年 研究』, 『美術史學研究』 240호, 한국미술사학회, 2003.

김영원, 『세종-성종년간의 分院의 設置와 陶磁樣式의 變遷』, 『美術史論壇』 2, 韓國美術研究所, 1995.

_____, 『15世紀 ‘朝鮮磁器 樣式’에 關한 研究』, 『東垣學術論文集』 第1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8.

- 裴永東, 「朝鮮時代 誌石의 性格과 變遷」,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研究』, 溫陽民俗博物館, 1992.
- 박형순, 「朝鮮時代 무덤양식」, 『錦江考古』第2輯, 충청문화재단연구원, 2005.
- 宋贊植, 「官廳手工業의 民營化過程 -分院과 造紙署의 경우-」, 『朝鮮後期 社會經濟史의 研究』, 일조각, 1996.
- 安浩龍, 「朝鮮時代 喪制의 變遷과 그 社會的 意味」,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安晞材, 「朝鮮時代 國喪儀禮 研究-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숙인, 「주자가례와 조선 중기의 제례문화」, 『조선중기 예학과 일상문화-주자가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 李英蘭, 「朝鮮前期 書風의 變貌樣相 研究-왕희지와 조맹부 서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이태진, 「고려말 조선초의 사회변화」,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 이혜순, 「16세기<주자가례>담론의 전개와 특성 -가례의 문화적 수용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2006.
- 임민혁, 「朱子家禮를 통해 본 朝鮮의 禮治」,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3호, 2000.
- 장철수, 「誌石의 發生에 대한 一考察」, 『先淸語文』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 정길자, 「고려시대 화장에 대한 고찰」, 『釜山史學』7, 부산경남사학회, 1983.
- 鄭鐘秀, 「조선초기 상장의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_____, 「麗末鮮初 喪葬制度和 文化 -葬期와 三年喪을 중심으로-」, 『丹臺文化研究』, 龍仁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 2001.
- 지두환, 「조선초기 주자가례의 이해과정」, 『한국사론』, 1982.
- 최완수, 「韓國書藝史綱」, 『간송문화』33, 간송미술관, 1987.
-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中文-

- 李永明, 「中国古代墓志铭的源流」, 『山东图书馆季刊』1期, 2003.
- 朱智武, 「中国古代墓志起源新论—兼评诸种旧说—」, 『安徽史学』3期, 2008.
- 邱永君, 「墓碑与墓志铭」, 『寻根』6期, 2003.
- 熊基权, 「墓志起源新说」, 『文物春秋』1期, 2001.
- 中国考古学会编, 『中国考古学会第2次会论文集(1980年)』, 文物出版社, 1982.

4. 도록

- 강진청자박물관, 『고려시대 분묘출토 청자유물 특별전』, 2007.

-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명품선』, 2004.
- 계명대학교박물관, 『개교 50주년기념 개관기념 전시도록 계명대학교박물관』, 2004.
- 公州大學校博物館, 『寄贈遺物圖錄 高靈金氏 松庵公派』, 2004.
- 關東大學校博物館, 『開校 50年 紀念 所藏品圖錄』, 2004.
- 국립공주박물관, 『기획특별전 계룡산』, 2007.
- _____, 『백토에 핀 철화의 향연 鷄龍山 粉靑沙器』, 2008.
- 국립문화재연구소, 『역사의 숲 조선왕릉』, 2007.
- 국립민속박물관, 『韓國의 喪葬禮』, 1990.
- 국립중앙박물관, 『다시 보는 역사편지 高麗墓誌銘』, 2006.
- _____, 『조선 왕실의 묵향』, 2006.
- _____, 『계룡산 분청사기』, 2007.
- _____, 『계룡산도자기』, 2007.
- _____, 『삶과 죽음의 이야기 朝鮮墓誌銘』, 2011.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강진군, 『고려청자 보물선과 강진』, 2009.
- 국민대학교박물관, 『국민대학교박물관 소장유물 도록』, 2006.
- 國史編纂委員會, 『高麗·朝鮮墓誌 新資料』, 2006.
- 大邱大學校博物館, 『大邱大學校博物館圖錄』, 1991.
- _____,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소장품도록』, 2008.
- 동국대학교박물관, 『건국 100주년 기념 특별전 국보전』, 2006.
- 동산도기박물관, 『사진과 해설로 보는 조선 분청사기와 백자』, 2006.
- 東亞大學校博物館, 『所藏品圖錄』, 2001.
- 명지대학교박물관, 『박물관도록』, 1996.
- 문화관광국, 문화재관리국, 『重要發見埋藏文化財圖錄Ⅰ』, 1989.
- _____, 『重要發見埋藏文化財圖錄Ⅱ』, 1989.
- 부산대학교박물관, 『박물관 전시안내』, 1984.
- 부산직할시립박물관, 『박물관 도록 제3집』, 1984.
- _____, 『부산 시민소장 도자기 특별전』, 1992.
- 새창주약국, 『알기 쉬운 가정의례』, 1996.
- 淑明女子大學校博物館, 『高麗·朝鮮朝 陶磁』, 1991.
- 연세대학교원주박물관, 『연세대학교원주박물관도록』, 2001.
- 溫陽民俗博物館,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研究』, 1992.
- 원광대학교박물관, 『박물관도록』, 1984.
-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명기와 묘지』, 1978.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선관요와 지방백자』, 2005.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1982.
 忠北大學校博物館, 『원주 둔산리 전주유씨 선산 분묘조사 조선시대 무덤과 겨문거리』, 2000.
 청주대학교박물관, 『박물관도록』, 1983.
 _____, 『개관 33주년 기념 박물관도록』, 2000.
 忠北大學校博物館, 『忠北大學校 博物館 所藏 墓誌』, 2004.
 충주시, 『충주박물관 소장품도록』, 2004.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문화재대관 2 - 국보 2』, 1993.
 漢陽大學校博物館, 『漢陽大學校博物館 收藏遺物選』, 1995.
 호림박물관, 『조선백자명품전』, 2003.
 호암미술관, 『조선백자전Ⅱ』, 1985.

-日文-

奈良國立博物館, 『遣唐使と唐の美術』, 1995.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優艶の・質朴のかたち-李秉昌コレクション-寒國陶磁の美-』, 1999.

-中文-

浙江省博物館, 『浙江紀年瓷』, 文物出版社, 2000.

5. 보고서

고려대학교박물관,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조사 보고서』, 2003.
 국립광주박물관,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1993.
 國立中央博物館,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道馬里 1號 窯址-』, 1995.
 국립중앙박물관, 『계룡산도자기』, 2007.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 表調査報告書 圖版篇』, 1998.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 表調査報告書 解説篇』, 2000.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廣州朝鮮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樊川里5號·仙東里 2, 3號-』, 1986.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朝鮮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附 廣州 牛山里9號窯址發掘調査報告書』, 1993.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경기도 광주시, 『조선시대 마지막 官窯 廣州 分院里 白磁窯址』, 2006.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2007.
 조선관요박물관, 경기도 광주시, 『광주 송정동 5·6호 백자가마터』, 2008.

국문초록

誌石은 한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삶의 궤적을 기록하여 墓 속에 매장한 물건으로 墓와 죽은 사람을 결부시켜 후세에 오래토록 전하려는 것이다. 誌石에 기록된 내용은 本貫, 성명, 조상의 계보와 관직, 생일과 사망일, 관직과 평생의 행적, 가족관계, 墓의 위치와 坐向 등이 있다. 중국으로부터 석제 지식의 전통이 유입되어 고려시대에는 석제 지식이 주류를 이루지만, 조선시대에는 새롭게 자기제 지식이 제작된다. 본고에서는 주자가례의 수용에 따른 자기제 지식의 변화와 특징을 통해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른 사회 계층간의 특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자기제 지식의 제작 배경은 두 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자가례가 수용됨에 따라 유교식 상장례제도가 정착되었고, 그에 따라 지식의 매장이 일반화되면서 지식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 이후 양반인구의 증가와 의식이 확대된 결과, 유교식 상장례를 실천하고자 했던 향유층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자기제 지식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성리학에 근거한 차별화된 예법에 따라 지식의 제작이 이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왕실은 석제 지식, 사대부는 자기제 지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치스러운 장례문화의 규제와 석제 지식의 제작 및 사용에 따른 폐단의 대두로 왕실은 자기제 지식의 사용을 권고하였다.

자기제 지식의 기록방법별 특징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시문기법의 상·하한연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제 지식의 서체 변화로 볼 때, 우산리 9-3호 출토 〈白磁陰刻壬寅銘誌石片〉의 간지를 1482년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가마의 운영시기를 15세기 후반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자기제 지식의 사용계층 분석을 통해, 장방형 청화백자지식은 당상관을 중심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청화안료가 일부 상위계층에서 향유하는 전유물이자 과시품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대부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던 자기제 지식은 내용의 기술이나, 형태의 변화에서도 관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조선이 엄격한 계급적 사회였음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Abstract

Joseon Porcelain Epitaph Tablets: Their Evolution and Characteristics

Kim Se-jin *

The goal of the custom of burying a 'Jiseok,' the epitaph tablet recording the chronology of the dead was to pass down his or her feat to next generations, associating with the person and tombstone. Information recorded in this epitaph table included the name of the deceased, place of origin of his or her family, his or her ancestral genealogy, dates of birth and death, government offices held and biographical timeline, family members, and the location and orientation of the tomb. As introducing the tradition of stone epitaph tablets from China, there were many stone epitaph tablets during the Goryeo period. But porcelain epitaph tablets started to be produced during the Joseon perio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classes along the Neo- Confucian lifestyle, according to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accepting Zhu Xi's *Principles for Home Rites*.

There are two factors in the background of the production of the porcelain epitaph tablet during the Joseon period. First, as accepting Zhu Xi's *Principles for Home Rites*, Confucian funeral services system started to become widely practiced in society of the Joseon. This, in turn, appears to have made the burial of an epitaph tablet a widespread practice. From the early 18th century, there was 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belonging to the upper class(*yangban*), spread of their consciousness, in consequence, more people

*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history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spoused Confucian funeral services system; hence, a more popular use of porcelain epitaph tablets. Second, along the discriminated proprieties based on Neo-Confucian, two different types of epitaph tablets were produced: stone epitaph tablets for the royal house, and porcelain epitaph tablets for upper class households. It appears, however, that the use of porcelain tablets was also encouraged by the royal house to curb extravagant funeral customs and reduce abuse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and use of stone epitaph tablets.

Based on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method of recording information on porcelain epitaph tablets, I was able to propose criteria for dating the various epigraphic techniques. Further, based on the change in calligraphic style used in porcelain tablets, I was able to establish that the sexagenary cycle date on the fragment of the 'white porcelain tablet with the Imin year inscribed in intaglio,' discovered at Usan-ri Kiln No. 9-3 of Guang-ju, is 1482; from which, one can also induce that the kiln was operated in the late 15th century. Meanwhile, through the analysis of social classes using porcelain epitaph tablets rectangle blue and white porcelain tablets were chiefly used among people holding a government office of rank or higher. I was also able to confirm that blue and white porcelain tablets were social status symbols reserved for a small minority of Joseon's upper class members. Porcelain tablets used by nobility were heavily influenced by the official rank in the description of the information and the change of their shape, and it appears that is the important indicator of the rigidly hierarchical society during the Joseon period.